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의 방향

Improvement in Quality of the Packaging Materials and Structures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관리시스템만으로 급증하는 1회용 포장재폐기물의 처리를 책임지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의 오염원인자 처리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산자에게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생산단계의 자극을 통하여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을 배려한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의 개선이 일어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전통적으로 생산자들은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를 설계할 때 제품의 보호라는 전통적 기능과 함께 마케팅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점점 더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복잡해져서 재활용의 관점에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포장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포장재의 설계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하는 포장재가 있다면 폐기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원관리 및 환경관리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분리수거 및 선별에 소요되는 돈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분리 및 선별의 현실성과 경제성이다. 따라서 생산단계의 배려가 없다면 실질적인 재활용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결국, 생산자에게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생산



홍 수 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자들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에 대한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지는 것이 EPR 도입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실제 EPR을 운영해 본 결과, 이러한 재활용을 고려한 포장재 디자인의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건이 갈색페트병의 등장이다. 재활용을 고려하여 페트병의 색상을 무색병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와중에 오히려 재활용이 더 어려운 복합소재의 갈색페트병이 맥주용기로 등장한 것이다. EPR은 갈색페트병의 등장을 막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갈색페트병은 EPR의 관리시스템 내로 오히려 들어와 안착하였다. 라벨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서 용기의 몸체를 전신으로 감싸는 지경에까지 온 사례도 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EPR의 핵심을 단순화시키면 생산자들이 재활용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통하여 생산자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생산자들이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을 배려한 포장재 설계를 등한시했다면 이는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을 배려할 만큼 생산자들이 EPR의 무에 지불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비용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용을 얼마만

큼 올려야 그러한 신호가 확실하게 전달되는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우며, 또 생산자들이 수용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개선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활용한 간접규제 정책에서 보다 명시적인 지침을 주는 직접규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즉, 포장재별 재질 및 구조의 설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개선에 관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 생산자들은 이 고시의 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고시제정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기준설정의 객관성과 관리의 문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설정의 객관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미 다양한 종류의 포장재가 도입되어 있으며, 제품이 보호와 정보전달, 마케팅 등의 포장재의 기능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고려하여 어느 선까지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재활용을 고려한 포장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구체적인 포장재의 설계기준 및 목표설정은 쉽지 않



다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멸균팩에 첩합된 알루미늄이 화장지 원단을 제조하는 제지공정의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재활용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 멸균팩 제조업체는 현재 20%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멸균팩이 종이팩 재활용에 곤란을 야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멸균팩 제조업체는 화장지 원단 생산공정의 수율문제나 제품의 품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재활용 문제로 멸균팩의 사용을 규제하고자 한다면 재활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객관적 증거를 규제하는 측에서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관리의 문제이다.

수만 가지의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이를 보고해야 하는 생산자 측의 관리의 어려움과 이를 심사해야 하는 평가기구의 어려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 등 관리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해야 하는 포장재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관련 고시의 원활

한 작동을 위해서 생산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징벌의 강화를 통한 생산자 참여의 강제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징벌의 강화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부여를 통한 생산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생산자와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시공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해관계자들 간의 많은 대화가 필요가 필요할 것이다.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